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홍보 강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대학원·어학당 등에 '찾아가는 마케팅' 시도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케팅을 벌인다. 이른바 '대상마케팅'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홍보 및 참가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대상마케팅을 통한 템플스테이 홍보와 외국인 단체 참가 증가를 올해 주요 사업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차로 국내 국제대학원 및 어학당 16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5개 및 국제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템플스테이 사업제안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한다. 사업제안서에는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한 PPT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영상물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사업제안서 등 3가지가 포함된다.

사업제안서와 PPT 자료에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프로그램 유형 소개 및 각 프로그램별 가능 사찰, 일정표, 예약 방법 및 연락처, 전국 73개 운영사찰 목록이 들어가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구성돼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 영상물은 사업단의 문화센터 건립팀, 템플스테이팀, 문화컨텐츠팀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대상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정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템플스테이를 홍보할 수 있는 해외 홍보의 인적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2011-1970~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외국어 진행이 가능한 사찰

지역		사찰명	적정수용인원	시기	프로그램 유형
인천	강화	연등국제선원	20	주말, 상시	수행형
충남	유성	자광사		주말, 상시	수행형
경북	경주	골굴사	100인 이상 가능	주말, 상시	불교문화체험형
	봉화	축서사	100	주말, 상시	

●지역별 추천 사찰

지역		사찰명	적정수용인원	시기	프로그램 유형
경기	양평	용문사	30	상시, 주말	수행형
	여주	신륵사	30	주말	기본형, 전통문화체험형
	강화	전등사	30	주말	수행형
충남	공주	갑사	30~40	상시, 주말	기본형,불교문화체험형
	공주	마곡사	40	주말	기본형
전북	김제	금산사	50	주말	기본형,휴식형, 수행형,생태체험형
	부안	내소사	30	주말	수행형, 생태체험형
경북	김천	직지사	100인 이상도 가능	상시,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전통문화체험형
	경주	기림사	30	주말	휴식형, 전통문화체험형
	봉화	축서사	100	상시, 주말	수행형
	경주	골굴사	100인 이상 가능	상시	불교문화체험형
경남	합천	해인사	30~40	주말	휴식형, 불교문화체험형
전남	해남	미황사	30~40	주말	수행형, 휴식형
	해남	대흥사	40~45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전통문화체험형
	구례	화엄사	50~70	상시,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생태체험형
	순천	송광사	20	상시, 주말	휴식형, 기본형 불교문화체험형
강원	평창	월정사	35	주말	기본형, 수행형
	동해	삼화사	30	상시, 주말	휴식형, 기본형

울릉도 물들인 '독도 아리랑' 열기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 '회당문화축제' 개최

회당문화축제 개막 공연이 8월 2일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진각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2007 회당문화축제 '비상 코리아'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8월 2일 도동항 특설무대 주변에 관광객과 울릉군민 30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각복지재단 산하 울릉군립 꿈나무 어린이집 원아들의 깜찍한 율동으로 무대를 열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올해 회당문화축제의 주제인 '비상 코리아'는 울릉도와 독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어나가고 있는 울릉군민과 부대원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주제"라며 "회당문화축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공연에서는 울릉도 출신의 J&C 안단테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으며, 장군밴드의 재즈공연, 타악팀 살판, 비보이팀 유니버셜 크루, 동물원, 안치환씨의 공연이 펼쳐졌다.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택하고 있는 회당문화축제는 올해도 행사기간 내내 도동항 소공원 일대에서 '독도사진전'을 개최했으며, '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소원지 쓰기, 천연염색, 독도사랑 전각탁본과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마당도 열렸다.

김원우 기자

관음사 사태 관련자 심리 연기

회주 중원 · 前 주지 용주 스님 등 불출석

제주 관음사 사태와 연관된 9명의 심리가 8월 1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조계종 조실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8일 제51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 용주 스님 등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호계원법 11조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7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심판부에는 前 주지 용주, 前 재무부장 유정,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 등 4명만 출석했다.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성국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에 '변상금 16억원(2년 이내)'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적'에 '변상금 16억원'을 요청한 호법부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법타 스님에게는 '심리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사회법의 결심공판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8월 17일 열리는 제51차 심판부에서도 심리연기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교임·전법사 임원 회의

태고종 전국교임 및 전법사 임원회의가 8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임 · 전법사 임원들은 △종단 방침과 지시대로 수행 △조직을 총무원에서 직접 관리 △전법사의 교육 강화와 전문적인 포교사로서의 역할증대를 위해 전국 교임특별교구 독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에 건의했다.

한편 교임 · 전법사 총회는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9호 6면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 인터뷰 중 '드레풍 라뙤 사원에서 10년간의 호법 소임'을 '드레풍 라뙤 사원에서 10년간 가르치고 1년간의 호법 소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 이달 31일

봉선사도 산중총회 개최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8월 31일 오후 2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린다.

산중총회는 현 방장인 보성 스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남양주 봉선사도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31일 오후 1시 봉선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남동우 기자

관음종은 8월 6일 총무원에서 법계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관음종 스님 124명 법계증 수여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8월 6일 총무원에서 승가고시를 통과한 124명의 스님들에게 법계증을 수여했다.

이날 법계증을 받은 스님은 대종사 6명, 대선사 2명, 종사 7명, 선사 5명, 종덕 53명, 대덕 51명이다.

관음종은 이와 함께 종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가사불사 점안식도 거행했다. 관음종 가사는 색깔은 연한 적갈색으로 하고, 문양은 둥근 테두리에 일반 옴자와 관음종의 전통 옴자가 새겨져 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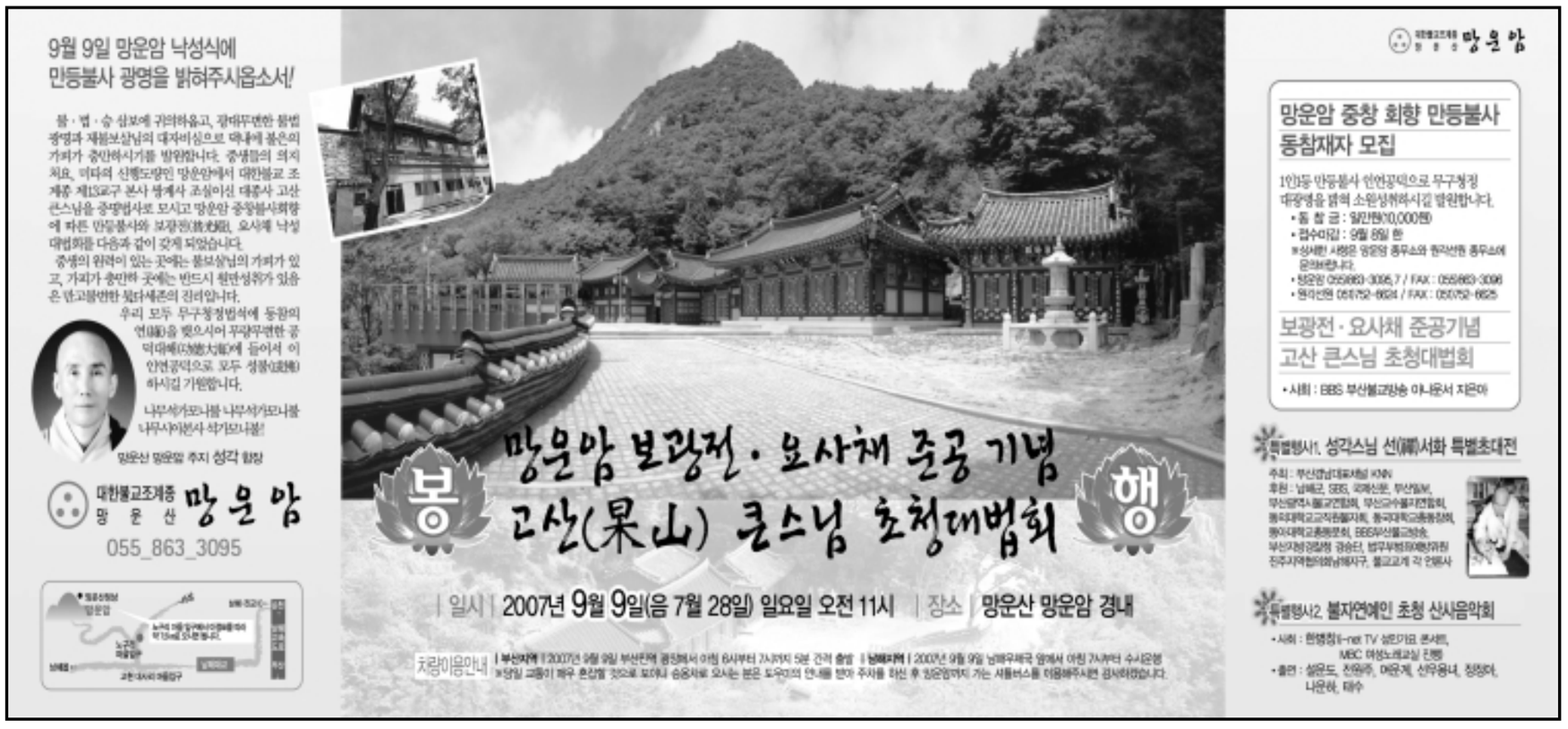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문의 :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